

긍정의 힘

작성일: 2011. 11. 18. 금

작성자: 이선진

[1차 기도도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
1시간 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가서 왕창 늦어 버리고,
2차 기도도 새벽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시작도 못하고
또 졸아 버려서 낙심과 좌절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최근에 가르쳐 주신
긍정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쓰자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낙심 중이었던 저의 마음이
다시 자신감을 얻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긍정의 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아, 네가 마음먹은 대로
실천이 잘 안 되어 낙심하였느냐.
분명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
또다시 안 되어 버리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는 않았느냐.
오늘은 이 마음의 현상에 대해 말해 주고
이 마음의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 낼 수 있는지 말해 주마.

첫 번째, 사탄은 너의 마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때에는 가만히 놔둔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최고의 정점의 순간에 올라왔을 때
혹은 그 일을 행해야 할 때
네가 예상치도 못한 변수를 심어 놓아
자신감이 충만하였던 너의 마음을 혼란케 하여
와르르 무너뜨린다.
기대가 큰 만큼,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것을 노린다.

처음부터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 너의 실망감이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그 순간을 노려 무너뜨려 버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탄의 마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곧 긍정의 힘이다.
긍정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더욱더 체감하도록 만들어 주며
실상은 네가 낙심해서
사탄의 주관으로 판단한 잘못된 판단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음을 느끼게 해 준다.
긍정은 수많은 사탄 마귀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천주 아버지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네 마음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영적 현상을 뒤집어
천군 천사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영적 무기이다.

긍정은 내가 선생을 키울 때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었던 악을 이기는 방법이였으며
이는 실제로 선생이 중심자의 노정을 걸어올 때에
마치 선생의 걸을 지켜 주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였다.

어떤 자는 낙심하였을 때
사탄의 주관을 받아 잘못 판단한 것이 참이고
긍정함으로써 새롭게 마음속에 불러오는 희망의 생각은
사치요 허구요 가식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수많은 낙심되고 좌절하기 쉬운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네 영과 육에게도 좁은 길이 있듯이
네 마음에게도 좁은 길이 있는 것이다.
좁은 길이 무엇이나. 바로 구원길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

고로 네 영과 육이 이 시대의 좁은 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역사에 몸담고 있는 것만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마음도 생각의 좁은 길을 가야
너의 영혼육 모두 온전히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은 너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다시 해 볼 수 있는 자신감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 버렸다면
첫사랑도 금방 되찾게 해 준다.
이래도 긍정하지 않을 것이냐.

아직 늦지 않았는데 늦었다고 판단해 버리며
더 이상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뛰고 달리지 않는 섭리인들이 너무나 많다.
너희 입장에서는 ‘나 하나쯤이야.’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전체를 통솔하며 주관하는 나 예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마치 본격적인 대 전쟁은 시작도 아니하였는데
미리 주저앉아 ‘나는 못해.’하며
사기를 다 잃어버린 패잔병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이 역사를 이끌고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구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옆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승리의 파장은 옆으로 퍼져
결국은 섭리역사 전체를 살릴 부흥의 불길이 퍼진다.
그러니 나의 신부들아,
바로 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옆 사람이 살아나 주길 바라면서 기대하지 말고
신부인 네가 살아나라.
나 예수는 그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너 하나만 쳐다보고 있노라. 알겠느냐.

(“주님, 저희 섭리 신부들이 긍정의 힘을 쓰면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낙심, 좌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는
사탄이 네 옆에 와 너를 가둘 감옥을 만들어
너를 집어넣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네가 사망길의 생각을 접고

생명길의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마치 너의 두 주먹으로
사탄들이 만들고 있는 감옥을 때려 부수는 것과 같다.

고로 자신이 현재 사탄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너희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의 이름을 불들어
사탄의 감옥을 부수고 빛의 길로 나아오너라.
그 길만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라.
너는 늦지 않았다.
안녕. 주 예수가.